

- 
- 
- 4 일필휘지
적멸 _ 방등스님 作
- 5 염화미소
팽중
- 6 지심회원 인터뷰
도서출판 푸른향기 _ 한효정님과 김규나님
- 11 큰스님 궁금합니다
백일기도로 소원성취가 가능한지요?
- 13 동자승의 일기
천상의 꽃
- 14 부처님께 배우는 지혜
계송 38·39 찢따하타 테라 이야기
- 16 방망이
죽음
- 17 불몽스님의 한의학칼럼
노소문답 _ 속이 편해야 건강하다
- 20 스님들의 한답터
명월거사님께 드리는 편지 _ 성아스님
- 23 자작나무 숲의 빨간 물고기
10화 별보다 빛나는 밤 _ 김규나
- 26 인등불사 / 지심회 소식
- 27 보리수 소식

별첨 불화 따라그리기 / 사경



만약 귀 자체에 소리가 있다면 이명(耳鳴), 또는 난청(難聽)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고 그렇다면 귀 바깥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귀에는 소리가 없다. 적멸(寂滅)한 채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근은 청정(淸淨)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변화가 없으니 상주(常住), 즉 항상 머문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불멸1』 중에서 이각스님 著

팽중

스승이 말했다.

-차에 치어 다친 개가 있다.

비록 네가 치료하기 위해 손을 뻗을 지라도,
개는 너를 물어버릴 것이다.

중생들도 그와 같아 치료해주려는 부처님의 손을 물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팽중. 악마. 사탄. 사이비. 이단.

- 이각큰스님 어록 중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을 만듭니다. 푸른향기

시인 한효정님과 소설가 김규나님

지심회원 5년차 한효정님 / 김규나님

김규나 _ 출판업 종사자보다는 소설가, 시인으로 인터뷰해주세요.(웃음)

보만스님 _ 네 그러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요즘 출판사 운영은 어떠세요?

한효정 _ 점점 종이책 인기가 사라지는 시대니까 출판시장은 어려워요. 일 년에 책 한 권도 못내는 출판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기해요. 굶어죽지 않을 만큼은 일이 들어오거든요.(웃음) 참 감사하죠. 세상은 투쟁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성취하고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와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 안 내요.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웃음)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만스님 _ 주로 출판을 의뢰하시는 고객들과 출판하시는 장르가 있나요?

김규나 _ 유명저자를 섭외해서 선인세를 주고 제작, 홍보, 판매에 필요한 자본을 출판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기획출판은 저희 같은 소규모 출판사로선 부담이 커요. 가끔은 그런 방식으로 책을 낼 때도 있지만 저희는 대부분 자비출판을 합니다. 고객이 원고를 가져오면 책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시나 소설 원고를 가져오는 저자부터 칠순이나 팔순 기념 자서전을 내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일기를 묶어주는 부모님도 계세요. 저희가 내고 싶은 책만 만들 수는 없지만 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출판시장이 어려워도 11년 넘게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 한번 책을 낸 분들이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내기도 하세요.

요. 유명한 저자가 아니더라도 자비출판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건 큰 보람이에요.

월가스님 _ 그간 제작했던 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효정 _ 예전에 할머니 한 분이 자서전을 내고 싶다고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원고를 내미시는데 원고지도 아니고 신문광고 전단지 뒷면에 자신의 평생을 연필로 비뚤비뚤 써놓은 글이었어요. 겨우 한글만 배우셨다는데 그분의 평생소원이 자신의 책을 한 권 갖는 것이었다고 해요.



요. 저자도 울고 객석도 울고, 감동이었어요. 그 결과 작년 연말에 베스트4에 선정되어 다시 한 번 나오셨지요. 그러다 보니 대형출판사 쪽에서 출판제의를 했다고 해요. 무척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 저자가 거절했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책도 푸른향기에서 내겠다고 하셨대요. 참 감사했지요. 이런 신뢰와 소중한 인연을 얻는 게 큰 보람이에요.

보만스님 _ 두 분은 어떻게 만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리애겐 다른 동업자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규나와 제가 불법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소량인쇄였지만 완성된 책을 안고 며칠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할 정도로 기뻐하셔서 저희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출판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책들은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요. 정산하고 보니 하나도 남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웃음) 하지만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기억이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아는 분들은 너무 상업적이지 않은 출판사로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김규나 _ 『아름다운 배웅』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나라 첫 여성장례지도사가 계세요. 처음에는 200부 정도만 만들어서 지인들과 나눠보겠다고 의뢰하셨는데, 원고를 읽어 보니 고인과 유족들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나 인생관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어요. 더 많은 독자가 이런 분을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자를 설득해서 서점 판매를 권유해드렸어요. 좋은 책은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돈 들여 광고한 적도 없는데 신문과 잡지에서 책 출판 소식을 기사화해주고 저자 인터뷰 요청도 몇 군데서 왔어요. 그리고 KBS ‘강연100도씨’ 에도 출연하셨지

한효정 _ 2000년 백화점 문화센터 수필반에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규나를 만났어요. 규나는 이미 수필로 등단해있던 상태였습니다. 나이는 제가 많지만 글로서는 선배였죠. 게다가 도도하고 차가워보여서 처음엔 말도 못 붙였어요.(웃음) 그런데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통하는 게 많았어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것도 같고 종교도 불교더라구요.

김규나 _ 그때 처음 인터넷채팅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밤마다 PC통신으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까워졌어요.(웃음)

한효정 _ 그러다가 2004년에 수필 수업을 함께 듣던 나이 드신 선생님께서 수필집을 내고 싶는데 저희들에게 한 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판사도 아니었는데 뭘 믿고 그런 의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했어요. 그렇게 교정보고 인쇄소 뛰어 다니며 책을 만들다 보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실수도 많았을 텐데 저희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그분이 은인인 것 같아요. 글이 좋아 시작한 일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요.

보만스님 _ 초창기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김규나 _ 사기?(웃음) 몇 달 일해서 책을 천권이나 만들어 배송시켰는데 돈을 안 주고 사람도 사라졌어요. 겨우 전화통화가 됐는데 돈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보라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엉뚱한 오해로 인해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도 다녀왔지요. 초창기에는 맘에 안 든다고 해서 전량을 재 인쇄 해줘야 했던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나 그렇지만 사람 대하는 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때마다 대표를 맡으신 언니가 저보다 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늘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면 힘들어 지쳤지만 혼자 겪는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게 다 우리 공부시켜려고 그러는 거다. 언니나 저나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원망하지 않고 마음 내려놓곤 했어요.

한효정 _ 고객들이 바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해요. 최고 품질의 종이에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과 편집을 가장 싸게 해주는 것. 그런 책은 없거든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보람된 일과 힘들었던 일을 묻는다면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면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요.

김규나 _ 가끔 허명을 얻기 위해 출판을 하고 홍보에 집착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책을 내고 이름이 알려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책을 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매스컴에서 왜 나를 불러주지 않지? 하고 불만스러워 하시죠. 글 쓰는 일은 그 자체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데 말이에요.(웃음)

월가스님 _ 함께 일하시면서 갈등은 없었나요?

한효정 _ 왜 없었겠어요? 친자매 이상으로 잘 지내

지만, 의견이 다르면 다투기도 하지요. 처음에 같이 출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조만간 싸우고 멀어질 거다, 라고 걱정한 분들이 많았어요. 동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이에도 돈 문제가 끼면 갈라지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으니까요. 가끔 연락하는 지인들 중엔 아직도 같이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웃음)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동업자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규나와 제가 불법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의견을 서로 내세우다가도 결국 불법으로 한마음이 돼요. 그 점에선 규나가 저보다 더 깊고 성숙해요. 불심도 깊지요. 부처님 법이 없으면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을지 모르죠. 불법 안에서는 내 마음 상대 마음이 다르지 않고 잘하고 못하고가 없잖아요.

김규나 _ 언니하고 인연이 15년이 되었는데 불법을 몰랐으면 아마 지금까지 함께 오지 못했을 거예요.

불법의 기본은 믿음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것. 스님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마음수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동성(同性)인 게 참 다행이라고 종종 말을 해요. 서로

이성이었다면 처음엔 좋은 연인으로 만났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서도 또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좋은 도반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해요.

보만스님 _ 그런데 푸른향기라는 출판사 명은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김규나 _ 출판사 검색하다가 이름이 이빠서 찾아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푸른, 이라고 하면 초록색의 숲이나 파란 하늘 또는 드넓은 바다를 떠올리잖아요. 그 순간 상쾌한 향기가 맡아지는 느낌이 들지요. 이런 걸 시각의 공감각화라고 하지요.

(웃음) 실은 오래 전 제가 pc통신에서 쓰던 아이디였어요.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책을 내면서 출판사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



때 언니가 푸른향기가 어떠냐고 하셨어요. 처음엔 좋은 이름일까, 확신이 안 섰는데 좋은 책을 만들어서 많은 독자들에게 마음의 푸른 향기를 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출판사 이름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월가스님 _ 출판업계에 종사하기 전과 후에 마음이 달라졌나요?

김규나 _ 모든 인문관련 업종이 그럴겠지만, 출판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시장은 좁아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긴 글을 읽지 않거든요. 출판업이 고상하고 지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힘든 3D직종이에요. 눈 빠지게 읽고 읽어야 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교정보고 인쇄소 뛰어다니고 책 포장해서 우체국에 실어 나르고, 언니하고 저하고 수백 권 책 나른 적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든 책이 팔리지 않아서 파지로 팔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속상해요. 또 저자와의 관계에서도 출판사 입장과 작가 입장 차이 때문에 책을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효정 _ 출판사, 작가, 독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각자 가진 가치관의 차이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조율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월가스님 _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을 무아(無我)라고 하죠. 그러다보니 남을 자기로 삼는 오류가 모든 중생의 무명이죠. 이름, 학벌, 직업, 이제는 고급자동차와 연봉을 나로 삼기까지 하니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모두가 처음부터 나는 아니었는데도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효정 _ 베스트셀러에 집착하지 말 것!

김규나 _ 본인이 정작 관심 있지도 않은 분야인데도 남

들이 보니까 나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유하는 물거품 같이 유행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좋거나 옳은 것은 아닌데 말이에요. 그

런데 출판계 쪽에서도 홍보나 마케팅에서 그런 독자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출판사도 기업이고 경제 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고를 때 내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꼼꼼이 따져보고 선택하면 좋겠어요.

보만스님 _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는 익숙한데, 이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각근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개개인의 정신수양이 올바르게 확립되기 전에는 출판업계의 환골탈태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한효정 / 김규나 _ 맞아요.

월가스님 _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출판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효정 _ 첫 번째는 눈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작가의 눈이 분명해야 합니다.

김규나 _ 확실한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져야 해요. 그러려면 우선 역사, 철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할 거예요. 유럽에는 역사와 철학의 담론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 교육이 부재하다시피 하지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기 생각을 가지기 힘들어요.

한효정 _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눈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견해가 작가의 글에 생명을 주니까요. 남들이 모두 알고 모두 생각하는 눈을 가지고는 작가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 그건 분명합니다.

김규나 _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저에게 조언을 구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아이돌스타를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아마 구성작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고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세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효정 _ 참, 저희는 출판사 블로그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소설, 시 연재도 하고 영화 노트도 올려요. 책으로 내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더 좋아요. 꼭 찾아와서 지적 해주시고 좋은 말씀 남겨주세요. 특히 규나의 글은 내 마음을 간지럽혀서 무언가를 꼬집어내게 만드는 글이에요. 그 글을 읽다 보면 시상이 떠오르곤 해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정말 잘 집어내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화두가 저희 글 속에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보만스님 _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규나 _ 출판업은 가난하지만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법도 제자들이 책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배울 수 있잖아요. 스님들의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로 크길 언니도 저도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로서도 좋은 소설을 계속 쓰고 싶고요.

한효정 _ 특히 이각큰스님의 법문 내용으로 꼭 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대중적으로 쉽게 읽히고 속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법문을 책으로 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겠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가 아니라 새롭고 명쾌

한 가르침을 보면 많은 분들이 놀랄 것 같아요. 저 역시 좋은 시를 써야죠.

김규나 _ 남은 생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쓰고 책으로 내서 세상에 펼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이에요.(웃음)

한효정 _ 인터뷰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공적인 자리라기보다 스님들과 차담을 나눈 시간이라서 좋았어요. 지심회지의 릴레이 인터뷰로 많은 지심회 불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효정

2002년 『에세이문학』에 수필 「엽기적인 딸」로 등단하고, 2004년 『심상』에 「낙타의 길」 외 5편의 시로 등단, 2012년 『서정시학』에 「국수 생각」 외 2편의 시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집 『나비, 처음 날던 날』이 200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도서출판 푸른향기 대표로 있습니다.



* 김규나

200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내 남자의 꿈」이,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칼」이 당선되었습니다. 2005년 수필 부문, 2008년 소설 부문으로 문예진흥기금을 받았으며 제25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단편소설집 『칼』이 2010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도서출판 푸른향기 편집장직을 맡고 있으며 장편 소설을 집필 중입니다.

푸른향기 블로그 <http://prunbook.blog.me/>
한효정님 블로그 <http://hwamoka.blog.me/>
김규나님 블로그 <http://foxinthemoon.blog.me/>

지금 100일기도 중인데 이틀 동안 절에 가지 못해 집에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원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祈禱)는 어떤 종교에서든 스스로의 모자람을 채우고자 하는 행위로 결국 원하는 바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중생이라면 이미 온갖 공덕이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금강경』에는 ‘약인 만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보시(布施)’란 ‘넓게 행한다.’는 뜻이고, ‘삼천대천세계’란 우주 전체를 뜻하므로 위 문장은 ‘사람이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져 있는 칠보를 가지고 넓게 행을 한다.’고 번역할 수 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가득 채워진 칠보’다.

우주 만물이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모두가 원소 기호에 불과하고, 그 원소들을 또다시 분석해보니 결국은 전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 한 번만 더 쪼개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일체는 모두 허공, 즉 빛의 화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 중의 하나인 인간의 몸도 역시 그와 같다.

그렇다면 허공이 몸을 이룬 것이고, 몸은 주위의 허공과 떨어진 자리가 없으며 떨어지고 싶어도 분리될 수 없으니 몸과 허공은 하나의 덩어리임이 분명하다. 그 성분이 모두 허공이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몸이란 계란의 노른자와 같고, 허공이란 계란의 흰자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주와 몸은 한 덩어리라는 말이다.

이렇게 우주와 몸이 통해 하나이기 때문에 별과 달을 보고 천둥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냄새를 맡는 것이다. 눈과 색이 서로 통하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벽이 있다는 말이고, 벽이 있다면 벽 뒤의 색은 눈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므로 둘이 된 것이며, 둘이 되면 서로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눈이 은하수를 확인했다면 이는 은하수와 눈이 통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만약 먼 곳의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대상의 크기가

시력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 이미 보이지 않음을 다시 ‘보고’ 있으니 통해 있다는 법칙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인간 하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이름 하여 칠보(七寶)라 한다.

칠보란 일곱 가지 보배로서 우리 몸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즉 흙, 물, 불,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분은 이미 허공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허공의 화합으로도 이 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설사 몸은 부모가 만든다 해도 결국은 어머니의 입을 통해 들어간 세상의 음식으로 아기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몸의 성분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 성분을 코, 입, 피부 등을 통해 얻고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허공의 성분이 이 몸의 요소이고, 이 몸의 성분이 허공이므로 둘이 아닌 것이다. 단단한 이빨, 머리카락, 손톱, 뼈 등은 흙으로 빚어지고 피, 눈물, 땀, 오줌, 가래 등은 물로 빚어지며 체온은 불로 이루어지고 호흡은 바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나머지 셋이란 세상을 보는 정기, 즉 견정(見精)과 바라본 세상을 기억하는 식정(識精)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기억하는 능력’이다. 이 두 능력이 있기에 세상이나 자기의 몸을 알 수 있지 견정과 식정이 없다면 온 우주나 몸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로 허공의 기운이다. 우리는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것은 음식과는 다른 기운으로, 보이지 않는 생각의 재료가 된다. 숨을 쉬지 못하면 가장 먼저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생각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능력은 허공 속에 갖추어졌고, 허공을 이용해서 인간의 몸과 정신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람이란 이미 우주에 가득한 칠보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사대, 즉 흙[地], 물[水], 불[火], 바람[風]으로 이루어진 몸이야 싹이 나고 낙엽이 지듯 변화하고 생멸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 즉 견정과 식정과 생각의 능력은 불로 태울 수도, 창으로 찌를 수도 없으니 이미 생사를 초월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사

라질 것도 아니므로 영원할 것이다. 나아가 정신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허공의 성분이 다시 인연 따라 엉기고 흩어질 것이므로 윤회의 법칙을 또한 알려 준 것이다. 영원한 삶을 보장한 것이다.

이렇게 온 우주와 어우러지며 영원히 흘러가는 능력을 무엇과 비교해 더 위대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모자람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니 바라고 원하며 어리석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원해탈(無願解脫)’이라는 말이 있다.

일체의 이치를 통달하여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의 소원이나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마음의 경치를 ‘원이 없는 해탈’이라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기도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 우주와 평등한 ‘나’를 벌레 같은 티끌로 격하시키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무명일 뿐이다. 일체중생은 본래 부처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처란 칠보를 거느린 ‘깨달음’이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각스님, 『불멸(영원한 지금의 메시지)』
도서출판 지혜의눈, 2014 개정판

천상의 꽃

천상의 꽃은 참 좋은 생각이 든다.

왜인가?

사람들은 이처럼 이름을 좋아하지만

이름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천상의 꽃은 향기롭다.

하지만 그것은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낀다. 至心



계송 38·39번 찢따חת타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파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찢따חת타 테라와 관련하여 계송 38번과 39번을 설법하시었다.

사왓티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고 숲속을 헤메다가 수도원에 가서 비쿠들이 탁발해 온 음식을 얻어 먹게 되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비쿠가 되면 참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의 책임을 맡은 비쿠에게 간청하여 비쿠로 출가했다.

비쿠가 된 그는 마음 놓고 음식을 먹었고, 결국 그의 체중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자 그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탁발 나가는 것이 싫어졌고, 또 체중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는 것도 싫어서 가정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렇지만 세속 일도 편하지 않았다. 아주 힘이 들었고, 또 일상적인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여간 따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가 비쿠가 되었다. 그러나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것이 불만족스러워져서 두 번째로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그는 가정과 수도원을 왕복하기를 자그만치 여섯 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는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수도원에서는 물론 세속에서도 잘 견뎌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이처럼 자기의 게으른 마음에 따라 행동할 뿐 자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찢따חת타라고 불렀다.

찢따חת타가 이같이 수도원과 가정을 왕래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임신을 했다. 그러던 어느 때 (그것은 그가 여섯 번째 가정에 돌아와 있던 때였다) 그는 아내가 잠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기 아내가 옷을 입는 동안 마는 동안 잠들어 있는 추악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코를 골고 있었는데, 입에는 침이 흐르고 있었고, 배는 두꺼비처럼 불러있었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까지 하고 있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찢따חת타는 그동안 수도원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여 들었던 가르침, 즉 몸은 무상한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사람들은 이 더러운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착각하고 집착하여 살아감으로써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이 같은 진실을 곧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여러 차례 비쿠가 되었다가 다시 환속한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도 생활에 실패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 보관하고 있는 노란색 까사를 거머쥐고 일곱 번째의 출가를 하려고 수도원으로 뛰어가면서 연방 아나짜(無常 ; 무상)와 독가를 외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소따삿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그가 수도원에 도착하여 다시 비

쿠가 되겠다고 하자 수도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로 비쿠는 그의 청을 거절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비쿠로 받아들일 수 없소. 당신은 너무나도 자주 머리를 길렀다 깎았다 했기 때문에 이전 칼 가는 솜씨조차 다 닳게 될 정도요.’

이에 당황한 찻따חת타는 자기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다면서 사정했다. 그리하여 결국 책임을 맡은 비쿠가 된 찻따חת타는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끈기 있게 관찰·수행하여 며칠 사이에 아라חת따 팔라를 성취하였다.

찻따חת타의 비쿠 생활이 예전과는 다르게 오래 계속되자 다른 비쿠들은 이 일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찻따חת타에게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도원에만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찻따חת타는 대답했다.

‘내가 전에 가정으로 돌아간 것은 아직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가족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비쿠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찻따חת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느니라, 그가 과거에 집과 수도원을 왕래할 때는 그의 마음이 만족을 몰랐기 때문에, 가정에 있을 때는 수도원이 좋아보였고, 수도원에 있을 때에는 가정이 좋아 보였었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그가 담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제 아라한이 된 그는 좋고 싫음을 다 초월하였으므로 흔들림이 없어진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계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그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담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며
그의 신심이 확고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의 지혜는 완전할 수 없다.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났고
증오와 성냄으로부터도 벗어났으며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하여
경각심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험도 없다.



『법구경』 p.145~148 거해스님 편역, 고려원, 1993



몸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곧 흩어져
 지, 수, 화, 풍으로 돌아가니 몸이란 곧 음식 덩어리다.
 음식은 이미 생명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육신 또한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
 마치 생명이 깃들지 않은 흙이나 물과 같이.

그렇다면 마음이란 어떠한가?
 마음은 허공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칼로 베거나 불에 태울 수 없다.
 허공이 살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듯
 마음도 살거나 죽는다고 할 수가 없다.

육신에도 죽음이란 없고, 마음에도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싫어하고
 죽기 싫다고 발버둥치는 것일까? 



노소문답

1. 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부르는가?
2. 만병의 근원 노폐물(피로물질)
3. 보약의 허와 실
4. 화병(스트레스)
5. 속이 편해야 건강하다
6. 평소 건강 관리법

글 · 건화한방병원 원장 불몽스님

 소년: 올 겨울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 다행입니다.

 노인: 추우면 춥다고 알 수 있고 더우면 덥다고 알 수 있는 것이 더 다행 아니겠는가?

 소년: 아! 그렇군요. 어떤 일에 대해 좋고 나쁘다고만 하였지, 그렇게 ‘안다’ 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 오늘은 무엇이 궁금한가?

 소년: 오늘은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들려주십시오.

 노인: 옛말에 병이 된 후에 치료하는 의사는 하열한 의사이고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의사가 뛰어난 의사라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의사에게 가기

전에 스스로 병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남을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명의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질문을 하였다.

 소년: 그런 말이 있었군요.

 노인: 대부분의 질병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감기 같은 것은 환자 스스로 원인도 알고, 증상도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내과적 질병은 오랜 기간이 지나서 증상이 드러나고 그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병이 많이 진행되거나, 손쓰기가 늦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소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큰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노인: 아무리 높은 빌딩도 1층부터 쌓아야 되듯

이 아무리 불치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시작점은 아주 미미하다.

왜냐하면 질병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없음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점은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병의 원초적인 시작점은 알기가 쉽지 않다.

 소년: 원초적인 시작점은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노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존재는 걸식을 한다. 즉 음식을 걸식해서 나의 육신을 만들고 남의 지식을 걸식해서 마음*을 만든다. 그렇게 만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며 삶이라는 것을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그 걸식의 과정과 행위의 과정이 조화로우면 질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 여기서 마음은 근본적인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말한다. 즉 기억의 덩어리**

 소년: 그렇다면 먼저 걸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과정의 조화가 깨지는 것을 감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노인: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몸을 먼저 이야기해보자. 음식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은 입,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의 순이다. 즉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건강의 척도이다. 즉 문제가 생기면 먹고 배설하는데 먼저 장애가 생긴다는 말이다.

 소년: 그렇다면 섭취와 배설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노인: 들어오는 음식물의 양과 질이다. 적당한 양과 신선한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보아야 할 것이 심리 상태이다. 몸은 스스로 섭취하거나 배설하지 못하고 마음의 명령에 의하여 섭취 배설의 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명령이 전달된다면 들어오는 음식의 양과 질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즉 과식을 하거나 굶거나, 편식을 하거나, 몸에 좋지 않지만 맛있다고 생각하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술 담배 등을 섭취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섭취와 배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소년: 그러면 섭취와 배설을 잘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면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노인: 그러하다. 속이 편해야 건강하다는 말이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을 뱃속 편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재미있는 의미가 들어있다. 무슨 말이나면 뱃속이 편하다는 말은 마음이 편하다는 뜻을 알 수 있다. 즉 마음이 편하면 뱃속이 편하고, 뱃속이 편하면 섭취 배설에 장애가 없는 것이므로 몸의 상태가 쾌적한 것이고, 그로 인해 다시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면 뱃속이 불편해지고, 뱃속이 불편해지면 섭취 배설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질병이 되는 것이다.

 소년: 그렇군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인간사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혹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뜻을 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이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욕심을 비우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원하는 것이 없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소년: 욕심을 비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노인: 그래서 불법(佛法; 세상의 이치)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다보면 사실 욕심을 비운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나 일반인들을 위하여 욕심을 비우라고 한 것이다.

욕심이 생기는 이유는 욕심 부릴 <일>이 실제로 있고 욕심 부릴 <시간>도 있고 욕심 부릴 <나>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셋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꿈처럼 환상으로 느껴질 뿐인 것이다. 그러함을 하나하나 밝혀가는 과정이 공부의 길이고 공부의 길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저절로 쉬어진 무사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소년: 결국 속이 편하기 위해서는 불법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노인: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라도 결국 그 원인과 해결책을 따지고 들어가면 불법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를 쓴 사람은 많았지만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일하시니 그 가르침을 배움이 옳지 않겠느냐.



소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이 든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노인: 병이 들었다는 것은 속이 편안하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육체적인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다. 그러니 변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는 자라면 당연히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아 잘못된 견해*로 인하여 불편해진 속을 올바른 견해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고 그 후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이미 발생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원인이 자기의 어리석음임을 모르고, 남인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

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렇게 한두 번은 의사에게 의존하여 효과를 보아 질병의 호전된다 할지라도 그 원인인 어리석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세상에 욕심을 낼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여 이를 수도 없는 욕심을 내는 것**



소년: 병을 예방하려는 자나 이미 걸린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자나 기본적으로 병의 근본원인인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노인: 그러하니라. 이제 쉬어야겠다.



소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명원거사님께 드리는 편지

글 _ 성아스님

명원거사님 안녕하세요.

을미년 추위가 아직도 길게 남았지만 지혜로운 견해로 사유해나가며 잘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청정도량 도각사는 거사님의 염원대로 종교법인 보리수 발대식도 잘 마쳤고 병원개설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출판준비며 법회 준비 등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느라 대중스님들의 일상도 꽤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답장으로 궁금해 하시던 문제가 기쁘고 통쾌하게 풀리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체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꿈이란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법우를 옆에 두셨으니 정말 행복한 일이고 마땅히 축하받을 일입니다. 세상살이 사연에 매여 살아가는 중생적 마음은 듣는 여유가 없어 이생에서 만나기 힘든 희유한 법을 듣고도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고 또 듣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서로에게 큰 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명원거사님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

현실의 꿈에서는 감각이 선명하여 정밀하게 볼

수 있어 수행하기 용이한데 잠속의 꿈에서는 감각이 흐려서 마치 흑백TV를 보는 것 같아 꿈속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그것도 그동안 수억 겁을 내려오면서 무명으로 쌓인 환상인줄 모르는 착각의 힘 때문인지요. 잠들었을 때 감각이 흐린 것에 대해 다음 편지에 설명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색깔은 눈에 보일뿐 절대 가질 수 없다.’ 는 말씀은 이각 큰스님의 『불멸』 책에서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사유해보시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원거사님께서 현실에서는 감각이 선명하여 정밀하게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선명한 현실은 단 한 찰나도 잡을 수 없습니다. 사라져 바로 기억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풍경을 한번 보세요. 색깔 하나하나가 너무도 선명합니다. 그러나 찰나찰나 보는 족족이 사라져 기억이 돼버립니다. 정신이 깨어있기만 하면 새로운 풍경이 계속 다가오는 것이지 지나간 기억속의 풍경을 끄집어다가 선명함 그대로 앞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찰나마다 다가오는 풍경은 선명하지만 지나간 기억을 회상해보면 지금의 선명함은 아니라는 애깁니다.

잠 속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잠이 들어 꿈을 꿀 땐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 빠집니다. 만약 꿈을 꾸는 순간에 흐릿하게 보인다면 실제상황이라고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꿈인 줄 아는 시간은 이미 꿈에서 깨어나서 지나간 꿈을 기억으로 떠올릴 때인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잠자는 중에도 꿈을 선명하게 꾸기 때문에 그 순간은 현실이라고 속는 것이고, 꿈에서 깨어나서 지나간 꿈을 기억할 때는 기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흐릿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꿈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선명하게 느껴지는 색깔도 얻을 수 없고 당장에 느끼는 선명한 색깔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선명함은 단 한 찰나도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정신이 깨어있지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사유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주위의 경치를 보세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너무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식사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의 경치처럼 선명할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거사님의 인생살이들 전부를 다 떠올려 본다면 지금 당장처럼 선명할

순 없습니다. 당장의 선명함은 즉시즉시 떠나가고 있고, 떠나간 것은 기억으로만 남을 뿐 그 선명함을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어젯밤 꿈의 사연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지금 이순간도 찰나의 선명함으로 꿈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슬픔으로, 놀라움으로 무덤덤함으로, 사랑으로 미움으로, 당당함으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무량한 생각의 조각들로 기억을 만들지만 단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꿈일 뿐입니다. 꿈이 이러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본다면 어떠한 사연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심하게 받아들이는 생각은 없을 것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행입니다.

이각큰스님께서는 ‘ 삶이 곧 수행이다. 오직 정신의

깨닫는 능력으로 밖에 있는 지식을 받아들여 기억을 쌓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펼쳐 드러냄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삶이고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도 없는 잠에 들었다면 생각마저 없으니 삶이나 수행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정신이 깨어있는 찰나의 모든 생각이 삶이고 수행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내가 실체한다고 착각한 채 힘든 생각으로 지금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꿈이라서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편안한 생각으로 지금을 채울 것인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모든 중생들은 각자 자기의 견해대로 삶이라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존재성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라면 수고로운 번뇌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물속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맑고 투명한 정신이 사람이라고 착각한 채 분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힘든 수행, 즉 고행길이 되겠지요.

하늘을 나는 새가
물속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맑고 투명한 정신이
사람이라고 착각한 채 분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힘든 수행,
즉 고행길이 되겠지요.

또, 사는 것 따로 수행하는 것 따로 라는 생각으로 지금을 치열하게 있음으로 바라보며 살다가 수행할 시간 따로 내서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일깨워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행!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찰나

가 수행입니다.

이각 큰스님을 통해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신의 위대함을 전해 듣고 기쁘게 받아들여 지금 이 순간을 힘들지 않게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정신들입니다. 신들의 세계에 노닐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생각을 드러내는 정신이 있는 한, 깨닫는 정신이 있는 한 영원히 꾸어지는 꿈이라서 늘 기쁘고 안락하고 행복하시길 염원합니다.

*추신

답장을 기다리는 명원거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바르게 정진하시는 도반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적어 보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성아(聖我) 합장 

*푸른향기 김규나님께서 연재해주시는 동화입니다.

자작나무 숲의 빨간 물고기

10화 _ 별보다 빛나는 마음



희망의집 언덕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작나무들은 가지마다 푸릇푸릇 잎을 피우느라 분주합니다. 어린 새들은 작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하루하루 더 높은 나뭇가지 위로 날아오릅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는 숲속을 다람쥐들이 포로로 뛰어다닙니다.

한 달에 한번, 정우 선생님이 희망의집에 옵니다. 선생님은 시집을 두 권이나 낸 시인입니다. 시인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동아가 물었을 때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우주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재미있습니다. 다훈이는 선생님이 틀어준 음악에 맞춰 마이크 앞에서 동시를 낭송했을 때 라디오 디제이가 된 것처럼 기분이 근사했습니다. 기타를 잘 치는 선생님이 즉석에서 내는 기타 소리에 맞춰 한 소절씩 가사를 붙이고 노래를 부를 때 원국이는 작사가가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거려졌습니다. 문국이는 햇빛 좋은 날, 자작나무 숲에 들어가 다 같이 눈을 감았을 때 가장 좋았습니다. 다람쥐 뛰어다니는 소리, 초록 잎이 쭉쭉 자라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에 낯선 그림이 그려집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스케치북에 옮기면 그림이 되고 글로 쓰면 시가 되는 거

라고 했습니다.

“색종이가 모두 몇 장일까?”

오늘은 선생님이 알록달록 색종이를 나누어주고 물었습니다.

“일곱 장이요.”

분홍색 잇몸 밖으로 새싹처럼 이가 돋은 동아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첻. 뭐야.”

어린 아이들이나 가지고 노는 색종이라니, 재성이가 시시하다며 하품을 합니다. 개구쟁이 원국이도 더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몸을 배배 꼬입니다. 미술에 관심이 많은 문국이와 올 봄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훈이는 색종이를 만지작거립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분홍, 연두, 모두 예쁜 색입니다.

“색종이 위에 가장 소중한 것 일곱 가지를 하나씩 적어보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을 써보는 거야.”

동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원국이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재성은 여전히 재미없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얼까 슬며시 생각해봅니다. 크레파스, 스케치북, 문국이는 벌써 연필을 들고 적기 시작합니다. 동아도 문국이가 적는 걸 보고는 자신이 가장 좋

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핫도그, 라고 쓰고는 아무도 못 보게 손으로 가립니다. 다훈이는 선생님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비행기를 접어 파란 하늘로 날아가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를 접어 시냇물에 띄우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썼으면 한 장씩 찢어라.”

모두가 어리둥절해서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잠깐 망설이던 동아가 제일 먼저 ‘피자’가 쓰여 있는 분홍색 종이를 부욱 찢습니다. 원국어도 파란 색종이에 적힌 ‘로봇태권V’를 쭉 찢어버립니다. 재성어도 이제야 좀 재미있다는 듯 ‘텔레비전’을 찢었습니다. 다훈이는 조금 시무룩해져서 ‘자동차’를 천천히 찢습니다. 입맛을 췌 다시며 동아가 ‘햄버거’도 찢고 ‘장난감’도 찢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와 ‘강아지’를 찢을 때는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강아지가 아플 것 같아서 조심조심 찢으면서도 얼굴을 잔뜩 찌푸립니다. 유치원에서 제일 친한 친구 ‘송이’의 이름은 정말 찢고 싶지 않습니다. 문국어도 미래의 꿈 ‘화가’라고 쓰여 있는 색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축구’와 ‘컴퓨터게임’을 쭉쭉 찢으며 재미있어 하던 재성어도 ‘희망의 집’이라고 적힌 자주색 종이를 차마 찢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우 선생님은 다시 한 번 재촉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어서 찢어버려. 그냥 종이일 뿐이잖아.”

선생님은 왜 색종이를 찢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훈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고는 하는 수 없이 색종이를 찢습니다. 색종이에 동아와 인주 누나, 규종이 형, 원장선생님, 강희 선생님이 적혀 있습니다. 다훈이의 손이 점점 느려집니다. 한 장 한 장 찢을 때마다 다훈이는 누나와 형에게 미안합니다. 선생님들을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아 무섭습니다.

“선생님은 나빠요.”

다훈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다훈이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처럼 아픕니다. 찢어진 마지막 색종이에 ‘엄마랑 아빠’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았

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규종이와 그동안 읽은 책에 대해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타를 치며 인주에게 가르쳐준 팝송을 함께 부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자고 가는 날이면 늦게까지 놀아달라고 조르던 아이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강희 선생님도 수업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조금 화가 났습니다. 다훈이를 울린 정우 선생님이 조금 밍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속상했나 봐요.”

정우 선생님이 마당에 나온 강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좀 지나치셨어요. 이미 많은 걸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강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작 색종이를 찢으면서도 아파할 줄 아는 아이들이 많아요. 다만 가슴 속에 품은 사랑이 약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도요. 오늘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보여줄까 해요.”

정우 선생님이 강희 선생님을 보며 싱긋 웃어 보입니다.

자작나무 숲에 어둠이 내립니다. 별들이 하나 둘 언덕 위로 반짝반짝 떠오릅니다. 정우 선생님은 모닥불을 피울 준비를 해놓고 희망의 집 식구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대답해줄래?”

정우 선생님이 찢어진 색종이가 가득 담긴 상자를 열어 보이며 묻습니다.

“색종이에 적은 것들이 정말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였니?”

다훈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아도 머리를 까닥입니다. 문국이, 원국어도 네. 라고 대답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별이 되게 하자. 그럼 절대 찢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을 테니까. 어때?”

“에이. 거짓말. 어떻게 별을 만들어요?”

재성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묻습니다. 정우 선생님이 재성이에게 말합니다.

“별을 만드는 건 너의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리고 네

가 만든 별은 영원히 네 거란다. 의심 없이 믿는다면
말이지.”

탁탁, 장작이 타오릅니다. 정우 선생님이 찢어진 색종
이 조각들을 불 속에 넣습니다. 오색의 색종이를 태운
불꽃이 날아오릅니다. 검은 하늘로 높이 올라간 불꽃
들이 하나 둘, 별이 됩니다. 꼬리를 흔들며 밤하늘을
날아가는 불꽃을 보며

“저건 핫도그별이다.”

동아가 까악 소리를 지릅니다.

“저건 로봇태권V별이네,”

원국이와 재성이도 하하하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
다.

“화가별이야.”

문국이가 중얼거립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별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반짝인단다. 너
의 별을 찾았으면 이제 그 별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거
야.”

다훈이도 높이 솟아올라 별이 된 불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흔들립니다.

“엄마 안녕, 아빠 안녕.”

다훈이가 미소를 짓습니다. 별보다 빛나는 환한 웃음
입니다. 



* 김규나

200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내 남자의
꿈」 이,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칼」 이 당선
되었습니다. 2005년 수필 부문, 2008년 소설 부문으
로 문예진흥기금을 받았으며 제25회 현대수필문학
상을 수상했습니다. 단편소설집 『칼』 이 2010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도서출판 푸른향기 편집장직을 맡고 있으며
장편소설을 집필 중입니다.



1월 인등 올리신 분들입니다

정유 임영애 갑오 정택규 병자 박경자 신미 김다솜 을사 김종구 병오 김창수 정미 김영석 계유 김상웅 병자 김상준 병오 오태순
정미 김동원 경술 김지유 신묘 김도완 갑진 류찬규 갑술 류현욱 을사 박성순 신해 김정해 갑술 박지슬 을묘 박현슬 경오 김도윤
신사 하효림

** 2015년(을미년) 연등접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깨달음의 작은 등불을 밝혀보세요.*

인등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도각사로 문의하세요



1월에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강문희님 박성일님 김건상님 김경숙님 김규나님
김미영님 김선옥님 김정심님 김종길님 김종선님
김태구님 김해옥님 김현숙님 류종수님 박재국님
박재홍님 빈영순님 서보원님 송정호님 양명희님
양성권님 우영위님 유인숙님 유찬규님 이미자님
이민수님 이선주님 이성우님 이영채님 이원섭님
이유림님 이재은님 이주연님 이형운님 임혜정님
전초이님 정경숙님 정금숙님 정기섭님 정미경님
정택규님 정화용님 조영숙님 최돈문님 최은석님
최향길님 최현상님 한일국님 한태용님 한효정님
함정복님 홍도진님 황병호님



1월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지심회 운영지원금	200,000 원
청송교도소법회 거마비	100,000 원
청송교도소법회 간식	74,000 원
국회자살방지상담 거마비	100,000 원
지심회지, 가입신청서 발송비	7,830 원
지심회지 출력용 프린터헤드 구입	50,500 원
안심의원 점심떡 공양	150,000 원

1월 지출 합계	682,330 원
지심회 누적 후원금	19,380,302 원

지심회 총 회원수	131명
1월 후원자수	55명
1월 총 후원금	1,530,155 원



감사합니다

1월 한 달간 공양불사를 해주신

김건상님, 김정해님, 김종길님, 무기명님, 서인혜님, 설지영님, 양명희님, 양성권님, 양호근님,
오태순님, 이성우님, 임태분님, 최갑순님, 최돈문님, 황병호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소식



1 큰스님 신년법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무명인지 강조하셨습니다. 법회에 참석했던 불자님들의 마음에 무분별과 깨달음의 빛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을미년을 맞이하여 도각사 회주 이각큰스님을 모시고 신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1월 10일 16:00부터 2시간 가량 도각사 법당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수행을 해야 할 내가 있고 버려야 할 번뇌가 있으며 찾아야 할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행자의 가장 큰 병을 경계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오직 지금 뿐이라면 불도를 수행하여야 할 시간 역시 지금이어야 한다며 따로이 수행의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나누거나 수행자와 범부를 분별

2 고급반 법회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를 가슴에 담아가시는 불자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재가자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제자들보다 더욱 수승한 깨달음을 갖고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명료하고 통쾌하게 설명한 유마거사의 이야기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간략히 유마경이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경전의 한글번역과 함께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주셨던 이각큰스님의 유마경법회가 지난 1월 25일 15:00에 도각사 법당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각큰스님의 유마경법회는 초급반,중급반 법회를 모두 수료한 불자님들이 참석하게 되는 고급반 법회입니다. 그 어떤 종교와 철학도 범접할 수 없는

3 경북북부제1교도소 법회

지난 1월 21일 13:00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도각사 문화부장 화현스님의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교도소 법회는 모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봉행하는 이각큰스님의 금강경법회와 불교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법회가 진행되지만, 기온이 낮은 관계로 1,2월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큰스님의 금강경법회를 쉬고 교리법회만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20여명의 재소자와 마주앉아 함께 웃고 배우는 교리법회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유쾌했습니다. 특히 화현스님의 법문을 듣고 질문하는 불자님들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에는 죄도, 경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법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불자님들은 보안조치가 필요하니 미리 신청바랍니다.



4 2월 법회 안내



2월에 봉행되는 도각사 법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바르게 배우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처음 법회를 접하는 분이라면 쉽고 재미있는 법문을 통해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다른 곳의 법회를 많이 들어본 분이라면 도각사에서 봉행되는 교리법회만의 차별과 위대함을 즉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도각사 교리법회! 가슴 따뜻한 도반들과 천상의 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꼭! 법회에 참석하세요.

법회종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법회 일시	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3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강사스님	보만스님 / 월가스님 / 화현스님		이각큰스님
참석자격	누구나	초급반 수료자	중급반 수료자
주제	목탁교육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저 달은 존재할까?	유마경 관중생품

5 법회 지원



가정이나 회사, 소모임 등 불자들이 모이신 곳에 부처님의 향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각사로 연락주세요. 스님들과 일정을 만들어 법회를 지원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합이 필요한 이들에게, 병이나 사별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스님들께서 직접 찾아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환하게 번져나가는 기쁨의 빛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안심의원 소식

1 안심의원 떡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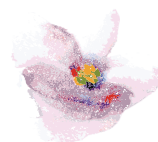
끝자리가 4일과 9일인 날은 안심의원이 위치한 용궁면의 장날입니다. 시골이다보니 버스시간에 맞추느라 점심공양을 거르는 환자분들이 많아 안심의원에서 무료 떡보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드시기 편한 백설기를 나눠드리지만 가끔 팔을 보시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루떡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정말 좋아하시네요. 한번에 100인분 썩, 한달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지심회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한 덩이 백설기에 환하게 웃으시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안심의원 이전 공사

안심의원이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 점촌 시내로 옮겨갑니다. 점촌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분들뿐만 아니라 타지역 분들도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3월 2일 개원을 계획으로 공사 및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분들과 스님들까지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의 의원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성원 바랍니다. 이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신 대중스님들과 재주가 많은 탓에 누구보다 고생 많으셨던 무제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해주신 정기섭님, 휴가를 반납하며 페인트칠을 하러 와주신 김태구님, 이미자님과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주신 유현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시출판 지혜의눈 소식



1 A3 용지를 후원해주세요



본 지심회지는 A3 90g용지로 인쇄됩니다. 그간 많은 분들의 감사한 보시로 2013년 2월호부터 지심회지를 제작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심회지 발송을 신청하신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쇄시 1500장 이상의 용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용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니 불법을 세상에 펼치는 지심회지 제작에 필요한 A3 90g(내지용) 또는 150g(표지용)짜리 용지를 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 지혜의눈 Facebook을 소개합니다

지혜의눈 페이스북을 소개합니다~ 사실 페이스북을 시작한지는 꽤 되었지만 독자들과 유연한 소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출판사 소식과 삶의 지혜를 드리는 좋은 글, 그리고 스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친구를 맺어주세요. 더불어 도각사 스님들께서 페이스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니 스님들의 일상과 법음을 가까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주소를 통해, 또는 검색어를 통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지혜의눈

주소 www.facebook.com/bodhicaksuh

사회봉사단 지심회 소식



1 국회 생명사다리 자살예방센터 상담봉사

도각사 총무부장이신 보만스님과 교무부장이신 월가스님께서 지난 1월 27일 12:00부터 15:00까지 국회 생명사다리 자살예방센터 상담봉사에 다녀오셨습니다. 매달 실시하고 있는 상담봉사는 국회 사무처에서 주최하는 상담센터로 30여분의 전문상담사들께서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조언하며 필요한 전문기관을 연계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만, 자살상담을 홍보한다는 것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어색한 일인가 봅니다. 자살을 상담하고자하는 마지막 용기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두 스님들의 봉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홍보 바랍니다.

2 지심회 무료의료봉사 후원

지역사회의 홀몸노인을 위한 무료의료봉사를 1월 8일 19:00에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오태2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상주시청과 보건소, 공검면사무소의 협조와 지심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의료봉사는 경북 예천군 안심의원 원장이신 금적스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검진해 주고 계십니다. 매월 시행되고 있는 의료봉사는 곧 지역 홀몸노인과 의료기관 방문이 불편한 각지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의료봉사는 간단한 검진뿐만 아니라 영양제 수액을 무료로 놓아드려 건강에 직접적인 이익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심회의 봉사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제 수액은 대구 신라약품에서 무료로 후원해주게 됩니다.

3 지심회 회원증 제작



모든 지심회원님들께 지심회원증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화현스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지심회원증에는 회원님의 사진과 고유번호가 새겨지며 봉사에 참여할 때 목에 걸 수 있도록 목걸이 타입으로 제작됩니다. 회원증은 사진을 보내주신 회원님들 순서로 제작되오니 잘 나온 본인 사진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우편을 이용해 법인사무실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은 사진 원본을 전송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회원증을 만들고 지심회의 가족이 되신 것을 꼭 확인해주세요~

4 국회 견학

오는 2월 9일 13:00에 국회 견학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의정기념관, 국회도서관, 의사당 내 법당인 정각선원을 견학하고 도각사 스님들과의 차담으로 진행됩니다. 2월 9일 국회 견학은 접수가 완료되었으니 다음 국회견학 프로그램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사단법인 보리수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점심식사는 국회 내 식당에서 가능하며 식대를 제외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우리나라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국회의사당 견학에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의료, 교육, 출판, 봉사가 함께 하는 수행마을

사단법인 **보리수**

CI 소개

-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를 형상화
- 깨달음의 나무로 수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섭수함을 표현
- 나뭇잎의 청, 황, 적, 백, 주황의 5색은 우리의 정신과 수행자의 모습
- 색을 채우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무아를 실천하는 수행자를 뜻함

어떤 일을 하나요?

- 불교법회봉행과 사회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업
- 불경 번역과 불교 교의 전파를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사업
- 불서 제작과 편찬, 보급을 위한 사업
- 도서지역, 교도소, 군부대 위문과 사회봉사활동
- 자살예방상담과 우울증 상담사업
- 봉사자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결성 및 운영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설립 목적

(정관 제3조 1) 본회는 불교의 교의를 바탕으로 불경번역과 불서보급, 법회를 통한 인성교육사업을 지향하며, 사회봉사와 의료사업을 통해 건강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2) 본회는 불서를 제작 편찬하는 도서출판 지혜의눈을 운영하여 현대인들의 위태로운 정신건강 보전에 지표가 되며 동시에 사회소외계층에 불서를 보급하여 법회를 통한 위문과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3) 본회는 지역사회 무의탁 독거노인의 의료복지를 위한 연세안심의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봉사와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4) 본회는 불교의 교의를 수행하며 사회봉사활동과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봉사자로 구성된 지심회를 운영하여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한다.

어떤 단체가 있나요?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 종파를 초월한 13분의 스님들이 수행하고 계시는 전국유일의 불경원전해석도량
- 초급반, 기초교리반, 경전법회반, 교도소 법회, 국회 상담센터 봉사 등 다양한 법회 및 외부활동
- 온라인 수행도량 <불교카페혜안> 운영

연세 안심 프롤로 의원

- 예천군 용궁면 위치. 15년 2월 경 경북 문경시로 확장이전 예정
- 전국 유일의 스님의사가 계시는 편안한 병원환경
- 스님들께서 편안히 치료받을 수 있는 불교병원
- 매달 지역노인을 위한 무료의료봉사 실시

도서출판 지혜의눈

- 불교의 오해와 진실을 널리 퍼기 위해 스님들이 설립, 운영하는 출판사
- 불멸! 인터넷 교보문고 스테디셀러 등록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 불교서적만을 고집하는 운영원칙

사회봉사단 지심회

- 외롭고 고독한 이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후원봉사단체
- 2015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예정
- 현재 100여명의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 중